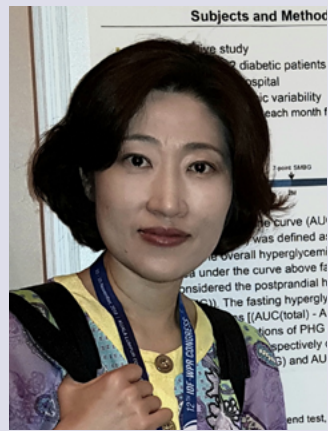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



진현정 제주의료원 내과

2017년 9월 제주의료원에 입사할 때만 해도 주말에 출근 안 하고, 외래 진료 부담도 적어 이제는 좀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게 되나 싶었다. 그러나 1년 후 갑자기 진료부장직이 맡겨졌을 때 처음에는 공공 병원에서의 의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기심도 있던 차에 한 번 해보자 싶어서 수락했는데, 지난 20년간 이리저리 미뤄져 있던 제주의료원의 입·퇴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재활 치료센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등을 오픈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될 즈음 2020년 1월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다. 대구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언제 제주도에도 환자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폭풍전야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2월 어느 토요일에 갑자기 중수본에서 내려와 회의를 한다고 도청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도청에 갔더니, 결론은 제주의료원의 입원 환자를 전원 소개^{轉開}하라는 것이었다. 아직 제주도에는 확진자라 몇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일주일 안에 전부 내보내고,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여 당황스러웠지만 행정명령이니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간부회의를 거쳐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시작되었다. 약 200명의 환자를 매일 퇴원시키는 일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갑자기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의사들이 직접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여 퇴원 동의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힘을 합쳐 일사분란하게 퇴원이 진행되었다. 매일매일 환자들이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나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 신종플루는 겪었지만 MERS는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 병동의 환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 이었고, 심지어 모두 노인들이라 기저질환도 많고 거동도 불편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신 분들을 갑자기 전원 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우리 병원은 구급차도 1대뿐이어서 도에서 구급차도 지원받아야 했다.

일부 적극적인 보호자들은 본인들이 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 병원에서 안내해준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다. 사실 막무가내로 전원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보호자들은 설득할 시간도 힘도 없어서 그냥 부속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순순히 국가 정책에 따라 전원을 갔던 분들이 나중에 급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더 고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더 아팠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환자들은 집이나 요양원으로 퇴원시키고, 급성기 환자들은 한마음병원, 정신과 환자들은 연강병원에서 수용해주었다.

소개 시작한 5일째 금요일, 사망 가능성이 높아 전원이 어려운 십여 명의

나머지 환자들을 부속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이들의 주치의가 된 나도 부속 요양병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의료원에는 비교적 젊은 남자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보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제주도에 코로나19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기 중이던 코로나19대응팀 일부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중에 공항에 나간 대응팀의 말을 들어보니 주차장에 간이 천막 2개를 두고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야외에서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검사를 해야 했다고 했다. 모든 게 처음이라 계속 시행착오가 생겼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정리가 된 후 결국 5월에 병동 소개 명령이 끝나면서 모두 제주의료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2차, 3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2층 병동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를 보면서 대기하던 중, 2020년 12월 제주도에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제주의료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보게 되었다. 또 다시 4일 내로 입원 환자들을 전부 소개했고 병동 간호사들을 전부 코로나19 환자들을 볼 수 있게 교육하고, 일반 직원들까지 차출해서 지원 업무를 맡겼다. 이번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나도 코로나19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생소한데도 첫날부터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한꺼번에 입원하면서 감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서로 힘을 합쳐 일하다 보니 다시 정리가 되어갔다.

2021년 3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청에서 전남대병원에 참관을 다녀오라고 하여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진이 각각 2명씩 출장을 다녀왔다. 처음 도입된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을 참관하면서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게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의료진보다 먼저 3월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접종에 대한 교육도 받으면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엄청 긴장했지만 막상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방심을 해서인지 결국 7월 4차 유행이 발생했다.

갑자기 확진자 발생이 폭발하면서 병상이 부족하여 정신과 병동까지 열고, 중수본에서 간호사 10명이 파견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의료원에는 내과 의사 2명, 신경과 의사 1명, 피부과 공보의 1명이 100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했다. 나도 한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1층과 2층을 오가면 회진을 돌다보면 숨이 차고, 땀으로 탈진할 지경이었다.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원했는데, 유일한 치료제인 렉키로나 주사는 18세 이상에서만 투여 가능하여 며칠씩 고열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수액과 해열제를 처방하면서 지켜봐야 할 때는 정말 안타까웠다. 그 와중에도 증상이 가벼운 학생들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챙겨 와서 착실히 공부를 하여 너무 기특했다. 오히려 경증 성인들이 좁은 병실에서 답답하다고, 간식 안 준다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고 의료진들에게 화를 내어 우리들을 더 힘들게 했다. 단란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온몸에 문신이 그려진 분들이 들어와서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그러저럭 상황이 정리되고 병실도 차차 비워졌다.

이제는 정말 끝이겠지 했는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5차 유행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환자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시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제주의료원에 병상 배정이 되었는데, 입원 당시부터 호흡곤란이 심해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환자는 며칠 만에 사망하였고, 이후부터 고유량 산소흡입기까지 사용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주의료원은 제주도의 공공 의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웠고, 앞으로 도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찾는 병원이 될 것을 확신한다.



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제주의료원에 가장 많은 병상이 확보되어 있어 하루 10~20명씩 배치되었고 일하다 보면 밤 12시는 가볍게 넘겨 새벽까지 입원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도 많았다.

그나마 입원 환자는 노하우라도 있지, 재택 치료는 또 다른 난관이었다.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라 도청과 보건소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지만, 환자들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화 모니터링 및 진료를 하는 것은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매일매일 지뢰밭이었다.

지침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진료 전반에 관한 세세한 사항들은 의료원의 몫이었고, 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환자 필수 물품 전달, 진료와 처방, 약품 전달의 모든 과정이 비대면이다 보니 소통이 중요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매순간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면서 간호사들은 오버타임이 일상이 되었고, 처음에는 엄청 꼼꼼하게 진행되던 모니터링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진행됐다. 의사들은 입원 환자 보라, 재택 치료 상담하랴 정신이 없었다. 저녁 6시 이후와 주말에는 도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상담이 제주의료원만 가능하여 저녁식사도 못하고 밀려드는 전화 상담을 계속 해야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막말과 고성을 들어야 해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도 심했다.

아무래도 전화로 진행되다 보니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오해도 많았으며 확진자 등록 과정에서 무언가 지연이 되면 성질 급한 환자들은 우리 병원으로 전화하여 불만을 쏟아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로 먼저 신고한 환자는 출동 후 비대면 진료를 거쳐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 막상 입원하면 왜 음압병실에 가두냐면서 답답하다면서 퇴원하겠다고 하여 속상한 마음을 꼭 누르면서 다음에는 입원 안 된다는 다짐 후에 퇴원을 시켰다.

그나마 병상이 있어 입원을 하는 경우는 다행이고, 요양원 집단감염의 경우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지 않아 요양원에서 해열제와 산소 흡입만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나,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 가능한 병원이 없어 입원을 못해 사망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는 허탈감도 밀려왔다.

그래도 처음에 재택 치료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는 것은 그나마 바이탈과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어 괜찮았는데, 나중에 환자가 폭증하자 일반군 환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고 직접 전화하여 일일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해야 해서 어이도 없고 속으로 짜증도 많이 났다. 그런데 막상 환자나 보호자와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종합 감기약만 처방하고 2~3일만 버티면 좋아진다고 말해 줄 수밖에 없어서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처음에 팩스로비드를 비대면으로 처방할 때는 노인들에게 병용 금기약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까지 물어보면서 문자 인증을 받고 DUR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전국적으로 팩스로비드 처방이 왜 적은지 이해가 되었고, 이제 와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후에는 그냥 절대 금기약만 확인하고 처방해버렸다.

내가 당직이었던 금요일에 저녁 7시가 넘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어머니께 팩스로비드 처방을 받아 가려는 보호자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처방 금기약이 확인되어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무조건 제주의료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보건소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잘 모르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도청에서도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우선 제주의료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가장 난감한 부분은 제주의료원에는 의료진도 부족하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 없어 진료에 제한이 많았는데도 초기에 무조건 제주도 환자들을 제주의료원만으로 배정한 것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진료부장인 내가 급한 대로 소아용량을 확인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방을 시작했지만, 소아과가 있는 종합병원들에서 협조가 거의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임신한 환자들도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상태로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이 왔는데 타이레놀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설득하려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다. 임신부나 소아를 만날 일이 없는 다른과의 과장들도 당직을 서면서 이런 요청이 오면 난처해하면서 다들 성심껏 상담을 해주어서 고맙웠다.

K-방역의 성공을 홍보하던 정부는 이번에는 확진자 발생이 매일 세계 1위를 하는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았다. 다들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싶을 때쯤 민간 병원들이 신속항원검사와 일반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부속 요양병원까지 병상을 확보하면서 노인 환자들의 입원도 차츰 줄게 되었고, 외지인 입원도 줄면서 병상이 비워져갔다.

4월 중순, 이제는 한숨 돌릴 때쯤 어느 여자 외상 환자의 L-tube 교환을 하면서 “너무 나한테 가래를 많이 뿜으시네.” 했는데, 정확히 4일 지난 밤부터 인후통과 기침이 시작되었다. 찻집한 마음에 매일 자가키트검사를 했더니 결국 양성 나오고야 말았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양성이었다.

다음 날 가족 전부가 PCR검사를 하고 남편과 아들, 딸도 확진이 되었다. 3차 접종을 한 지 딱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많이 힘들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거의 증상이 없고 철없이 학교 안 간다고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코로나19에 안 걸린 둘째만 매일 자가키트검사를 하느라 코를 찌시고, 혼자 외로이 학교와 학원을 가고,



밥도 혼자서 먹는 옷픈 상황이 벌어졌다. 인후통은 없어졌지만 피로감과 기침은 여전히 남은 상태로 다시 출근을 했고, 6월부터는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일부 해제되면서 일반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환자만 보다 보니 가끔 어떤 약은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일상으로 회복된 것이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코로나19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에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으면 다시 병상을 소개해야 한다고 한다. 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8월 10일부터는 재택 모니터링 집중 관리군은 없어지고 모두 일반군으로 전환되고, 외래진료센터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예전과 같은 혼란도 없고,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중증도도 줄어 3년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바뀌고, 도정도 바뀐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나의 작은 바람은 진료 지침을 정할 때 의료진과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신중 전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겠지만 실무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무조건 행정 지시를 먼저 따르도록 하여 새로운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현장은 항상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제주의료원의 의사 6명(내과 3명), 간호사 60여 명이 109병상 입원 환자와 재택 치료까지 필요할 때마다 다 담당하라고 해서 다 해내야 했다. 확진자 폭증 때 중수본에서 지원받은 간호사들은 방호복도 입을 줄 모르고 경력도 없는 신규들이 태반이었는데, 간단한 액팅 업무에 휴

게 시간도 보장받으면서 급여는 우리 신규 간호사들의 3배도 더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야 했다. 공항 선별진료소에서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하다가 급기야 천막이 태풍에 날아가서 오밤중에 보건소까지 장소를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또 다른 위기에 의료진의 사명감에만 기대지 말고 평상시에 공공 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음압병실 격리 같은 통제시스템이 당시로써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만 집중되어 일반 환자들은 오히려 진료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초기에 면회 제한에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을 것이며, 응급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고생하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 환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너무 무심히 지나간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의료원은 약 1670여 명의 입원 환자와 8만 1650명의 재택 모니터링 대상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했고, 약 5000건의 백신 접종을 했다. 덕분에 모처럼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개인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의사들과 도민들은 아직도 제주의료원이 노인과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주의료원은 제주도의 공공 의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웠고, 앞으로 도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찾는 병원이 될 것을 확신한다.